

장기 불황에... 법원 경매車 역대 최다



**광주지법 지난해 차량·중기 738대...전년비 16% 늘어
리스 비용 체납·개인 채무가 주원인...건설장비도 급증**

지역 경제의 장기적인 불황에 법원 경매 차량과 중기(중장비 건설기계)가 증가하고 있다. 개인 사정으로 진행되는 일반 경매와는 달리 법원 경매는 대부분 채무가 엮여 있어 법원 경매차가 늘어난다는 것은 그만큼 경기가 좋지 않다는 뜻이다.

3일 경매전문업체 지지옥션 등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지방법원에 나온 경매 차량과 중기는 총 738대로 전년대비 15.5%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법원 경매차 등록 대수는 해마다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2013년 500건을 넘어선 이후 2014년 639대, 2015년에는 700대를 돌파해 꾸준히 늘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131대가 등록된 점을 감안하면 올해안에 800대를 돌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법원 경매는 채권자 신청으로만 진행되기 때문에 개인 사정으로 이뤄지는 일반 경매와 성격이 다르다. 여기에 국가 세금 체납으로 문제가 발생한 차도 공매로 넘어가기 때문에 법원 경매차는 리스 비용 체납과 개인채무 등이 주원인으로 꼽힌다.

이창동 지지옥션 경매전문센터 연구원은 "경기침체로 인해 법원 경매에 나오는 차량과 중기가 눈에 띄게 급증했다"며 "과태료와 보험료는 물론 이제 자동차 할부금을 내지 못해 넘어오는 경우도 많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지역 경제계에서는 수입차가 경매로 나온 건수도 늘고 있다며 절

은 충을 중심으로한 무분별한 소비심리가 사회문제로 작용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전세나 월세를 살더라도 차는 수입자를 타겠다는 심리가 확산되고 있는데 막연히 비싼 수입차를 타고 싶은 심리가 개인의 신용도까지 갉아먹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올해들어 2월까지 광주지방법원에 나온 수입차는 중기를 제외하고 총 8대로 할부금과 이자를 내지 못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업계에서는 "이들 건수의 대부분은 제2금융권 자동차 커피업 업체들이 할부금과 이자를 제때 받지 못해 경매로 넘어온 물건"이라며 "수입차 판매량이 늘고 시장이 커지면서 경매에 부쳐지는 차

대수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고 설명했다.

지역 수입차 파이낸스 업체 관계자는 "차량을 판매한 뒤 고객이 할부금과 이자를 2개월(2회) 이상 연체할 경우 충분한 고지를 하며 이후 계약을 해지하고 추심에 들어간다"며 "사실상 경매로 넘어가는 것은 마지막 수단"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해 전국 법원에 나온 경매 차량은 총 9545대로 전년대비 30% 증가하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올해 들어서도 2월까지 1600여대가 등록돼 조만간 1만대를 돌파할 것으로 예상된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 코스피 1958.17 (+10.75)
- ↑ 금리 (국고채 3년) 1.50% (+0.04)
- ↑ 코스닥 669.01 (+6.76)
- ↓ 환율 (USD) 1214.60원 (-12.90)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 기념식 행사에서 한동연 광주청장을 비롯한 한 내·외빈들이 축하 떡케이크 커팅식을 하고 있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국세청 개청 50년... 모범 납세자 표창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제50회 납세자의 날 및 국세청 개청 50주년'을 맞아 정부광주합동청사 2층 강당에서 지역 경제단체장과 국세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 행사를 가졌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모범납세자에 대한 표창과 함께 아름다운 납세자에 대한 시상도 있었다. 또한 경제적 사정으로 세무대리인을 선임하지 못하는 영세납세자의 국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지원하기 위해 공개모집 한 국선대리인 2명에게 위촉장을 수여했다.

이와함께 1966년에 창립, 올해 국세청과 같이 50돌을 맞이한 (주)창해에탄올 등 지역 대표 장수기업 4개 업체 대표이사를

초청해 성실한 세금 납부와 세정협조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하며 떡케이크 커팅식 등 다채로운 축하 행사를 가졌다. 행사에 초청하지 못한 올해 창립 50돌을 맞이한 관내 장수기업 13개 업체에는 축하카드와 기념품을 발송했다.

이날 주식회사 사랑방미디어가 동탄산업훈장, 의료법인 행촌의료재단이 석탑산업훈장, 주식회사 캔스 산업포장, 광배산업 주식회사와 전북도시가스 주식회사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 이외에 기획재정부 장관 표창 18명, 국세청장 표창 20명, 광주지방국세청장 표창 28명, 세무서장 표창 37명이 수상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3월3일은 삼겹살 먹는 날" 농협전남지역본부(본부장 강남경)는 3일 무안 하나마트 남약점에서 '밥상위의 국가대표 우리돼지 한돈'을 슬로건으로 돼지고기 소비 촉진 행사를 했다. 이 행사는 '3월 3일 삼겹살 데이'를 맞아 한돈자조금관리위원회와 공동으로 진행했다. <농협전남본부 제공>

광주경총 일자리 지원 지난해 3831명 취업

40·50대 전체 97%

광주경영자총협회(회장 최상준)는 3일 협회가 주관하는 정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해 3831명이 취업했다고 밝혔다.

광주경총은 정부 일자리 재정지원사업으로 지난해 청년층 대상 청년취업인턴제, 청년취업아카데미, 지역맞춤형일자리사업, 일학습병행제를 운영했다. 또 중장년층에게는 중장년 일자리 희망센터와 장년취업 인턴제로 취업을 지원했다.

지난해 취업자 중 남성은 59.6%(2285명), 여성은 40.4%(1546명)였다. 취업자 연령대는 50대 이상 장년층이 2490명, 40대 중년층이 1210명이며, 39세 이하는 131명이다.

중장년층 취업 인원이 많은 것은 광주경총의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가 지난해 고용복지플러스센터로 입주하면서 고령자 취업활동이 활발해진 때문으로 보인다.

광주경총 관계자는 "중장년층이 단기교육과 취업알선 위주라면, 39세 이하는 300~400시간의 인력양성 훈련에 집중했다"며 "지속적인 취업프로그램 발굴로 지역 인력의 취업을 제고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광주·전남 소비자 물가지수 소폭 상승

지난달 광주·전남 소비자물가지수가 전월 대비 소폭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호남통계청이 발표한 '2016년 2월 광주·전남지역 소비자물가 동향'에 따르면 광주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4(기준년도 2010년)로, 전월 대비 0.5%, 지난해 동월 대비 0.6%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물은 전월 대비 4.4%, 지난해 동월 대비 3.5% 상승했으며 서비스 분야도 각각 0.3%, 1.6%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7.17로, 전월 대비 0.6% 상승했으며 신선식품지수는 전월 대비 7.4%, 전

년 동월 대비 5.4% 상승했다.

전남지역 소비자물가지수는 109.95로 전월 대비 0.5%, 지난해 동월 대비 1.2% 각각 상승했다. 농축수산물물은 전월 대비 4.9%, 전년 대비 6.6% 상승했다. 공업제품은 각각 0.2%, 0.7% 하락한 반면 서비스는 0.2%, 2.1% 상승했다. 생활물가지수는 108.34, 전월 대비 0.6%, 지난해 동월 대비 1.1% 올랐다. /김대성기자 bigkim@

'봄 이사철' 광주·전남 전셋값 상승

광주 0.02%·전남 0.03%

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광주·전남 매매시장은 전세가 비율이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매매전환 수요는 이어지고 있지만, 오는 5월 시행되는 대출규제와 주택시장 불확실성 매수관망세가 확산되며 소폭 상승하거나 상승폭이 줄어들었다.

3일 한국감정원이 내놓은 주간아파트 가격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29일 현재 광주지역 아파트 매매가격은 0.01% 상승하며, 전주(-0.04%) 하락에서 상승으로 전환됐다.

광주의 매매가격은 지난 1월부터 이 달 8일까지 하락세가 지속되다 같은 달 15일 0.01% 상승했으나 한 주만에 하락(-0.04%)했다.

전남은 0.01% 상승하며, 전주(0.04%)보다 상승폭이 축소됐다.

전세(0.02%)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전남은 0.03% 상승하며 전주(0.01%)에 비해 상승폭이 확대됐다.

광주·전남 전세시장은 봄 이사철 도래로 성수기 이전에 미리 선점하려는 수요와 신혼부부 수요 등이 증가하며 거주여건이 양호한 지역을 중심으로 상승세를 이어갔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신축상가 원룸 매매(전대정문)

전대 정문/후문 2분! (정문과후문사이)
(전대정문앞 모아아파트 후문앞 코너)

임대완료 **정 남향** **4층 주택**

1층 (상가 2칸)
2층~3층 (원룸 6개, 투룸 2개)
4층 (주택)을 주택
(방 3개, 화장실 2개, 내부 깔끔한 화이트, 다용도실)

□ 월수익 → 480만
□ 매가 → 6억 8천만
(용 1억5천 보 1억5천) (실투자 3억 8천)

(※ 주인직매) 010-6670-9800

첨단지구 8층 상가, 건물매매

광주 최초 (연구소 전문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오피스텔 및 상가 건물)

- 감정가 (분할시) - 56억
- 용자 - 26억 가능 (최대 31억 가능)
- 보 3억 월 3,000만

매가 → 38억

1층 (상가) 120평 (정원,잔디밭 사용가능)
2층~7층 (고급 오피스텔 룸) - 56개
8층 41평 (주택검사무실)
(옥상 풀 사용가능, 정원,경치좋은)

010-7384-7800

법률 경매

(주)대신경매

(특수물건 추천)	수익성 상가 (주택)
1. 동구 계림동 (다가구 원룸) (토 90평, 건 203평) (1층~4층 총 18개) 임대수익, 투자 가치 적합 계림동 홈플러스 남측 근처,채매개별지역 부근 감정가 9억3천 → 최저가 3억5천	1. 북구 두암동 (토 46평, 건 41평) 광주문화초등학교 남측, 차량 통행가능 감정가 1억2천 → 최저가 1억2천
2. 광산구 우산동 (숙박시설) (토 150평, 건 444평) (1층 - 식당, 2층~5층 룸 50개) 하남 시영아파트 북측 인근 위치 - 상가지대 감정가 11억3천 → 최저가 7억9천	2. 남구 양림동 (토 40평, 건 25평) 학강초등학교 북서측, 본건차량가능 감정가 7천백 → 최저가 7천백
3. 서구 풍암동 (다가구 원룸) (토 74평, 건 131평) (1층~3층 총 12개) 아파트 밀집지역 감정가 5억 2천 → 최저가 3억 6천만	3. 북구 중흥동 (토 46평, 건 50평) 건물 깨끗, 실업주 주택 적극추천 감정가 4억2천 → 최저가 8천5백
4. 남구 방림동 (근린시설) (토 207평, 건 333평) 삼일 아파트 단지 내, 주변 아파트단지, 코너지대 감정가 9억8천 → 최저가 5억5천	수익성 상가 (다가구 원룸)
5. 서구 쌍촌동 (숙박시설) (토 90, 건 364평) 1층~5층 총 37개, 운전역 3분거리 감정가 12억 → 최저가 5억5천	1. 서구 농성동 (토 41평, 건 45평) (1층 점포, 2층주택) 6차선 도로 접 감정가 2억 → 최저가 2억
6. 북구 중흥동 (모텔) (토 81평, 건 298평) 월수익 약 900만가능, (5층 총 32개) 감정가 8억2천 → 최저가 3억6천7백	2. 서구 풍암동 (토 68평, 건 170평) (1층 식당 2층 사무실, 3층주택) 감정가 4억5천 → 최저가 4억5천
	3. 동구 충장로 (토 34 평, 건 44평) (1층 식당, 2층 주택) 차선도로 접, 우의은행 광주점 부근 감정가 2억9천 → 최저가 2억

경매교육: 경매 이체는 대중화시대!...
바로실선 교육등고 수익창출가능
매주 수요의 (오전,오후반) 주말반 (오전,오후반)
경매기본교육부터 실전까지 (입찰, 매매, 임대~개발기획까지)
원스톱 강의
직인구합니다.
부동산, 경매, 법무실론, 부동산 자격증있으신분, 부동산 경매 관심 있으신분, 가족처럼 일하실분 환영합니다.

010-6834-4800 010-6832-9700